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제네바 (2022년 2월 1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가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국회 관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의 공식 국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 특별보고관은 2016년 3월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은 후, 앞서 여섯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금번 방문은 지난 2019년 6월 방한 이후 임기 내 일곱번째 방한이다. 방한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피해자 및 그 가족뿐 아니라 외교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2월 23일 수요일 (서울 현지 시각 기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기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오헤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이 파악한 내용과 권고는 2022년 3월 인권이사회에 특별보고관으로서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현 특별보고관 임기는 2022년 8월 마무리된다.

끝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오헤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Abuelas de Plaza de Mayo)을 대변하여 활동했다. 기업 형사 책임을 묻는 소송에 임한 경험도 있다. 과거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에 속하며,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주제별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사이트: [DPRK](#)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 문의는 Madoka Saji (+82 10 4230 3523 / [madoka.saji@un.org](mailto:madoka.saji@un.org)) 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 문의는 Jeremy Laurence (언론 부서: + 41 22 917 9383 / [jeremy.laurence@un.org](mailto:jeremy.laurence@un.org)) 로 문의주십시오.

태그 및 공유- 트위터: [@UNHumanRights](#) 및 페이스북: [unitednationshumanrights](#)